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1.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윤리학의 본질은 모든 행위자들에게 타당한 도덕 규칙과 표준들의 체계를 탐구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을: 윤리학의 본질은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 규칙과 인식론적 방법을 탐구하는 데 있다.
병: 윤리학의 본질은 개인 생활과 사회 구조 및 기능과 관련된 도덕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다.

- ① 갑은 도덕적 진술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 ② 을은 윤리학이 보편적 도덕원리와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문화 현상과 관행을 도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 ④ 갑은 병과 달리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본다.
- ⑤ 을은 갑과 달리 도덕 언어의 논리적 분석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본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이 도구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기술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표현은 아니다. 기술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 발달된 현대 기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부품으로 보게 한다.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만 보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된다.

- ① 기술을 중립적으로 볼 때 인간은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 ② 기술은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며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다.
- ③ 기술은 인간이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다.
- ④ 기술의 본질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 있다.
- ⑤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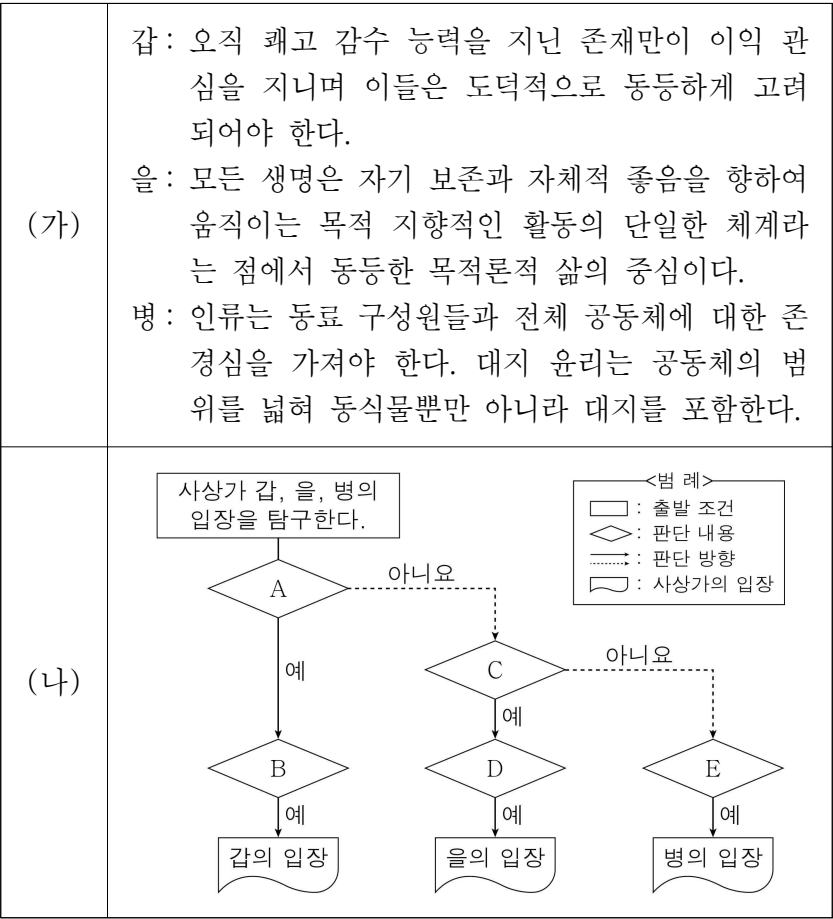
3.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인간은 본래 자유로우며 정부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 세워졌다. 통치권은 오직 공공선을 목적으로 위탁된 것이며 자유인은 자신의 동의를 통해서만 복종의 의무를 진다.
을: 인간은 모두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으며 사회 구조와 제도가 정의롭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 불복종은 오직 시민들 간의 자발적인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침해될 때 행사될 수 있다.

ㄱ. 갑: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정부에 복종할 의무를 갖는다.
ㄴ. 을: 정치 체제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표가 아니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 유지와 강화에 기여한다.
ㄹ. 갑, 을: 복종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E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인간이 인간 이외의 종(種)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인가?
- ② B: 유정(有情)적 존재를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하는가?
- ③ C: 고유의 선을 지닌 존재는 인간과 독립된 가치를 갖는가?
- ④ D: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는 생명만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가?
- ⑤ E: 인간은 동식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5.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각기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지만 형식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상징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요컨대 둘 다 이해 타산적 관심에서 벗어나고 자유의 체험을 내포하며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청한다.
을: 예술은 영혼의 눈에만 보이는 '아름다움의 실재'를 모방해야 한다. 그리고 예술은 영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젊은이들은 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을 관조함으로써 영혼이 아름다움에 동화되어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ㄱ. 갑: 미는 도덕성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ㄴ. 갑: 미와 도덕적 선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ㄷ. 을: 미의 이데아는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객관적 실재이다.
ㄹ. 갑, 을: 예술은 도덕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삶과 죽음은 운명이며, 낮과 밤이 변함없이 순환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자연이 나에게 몸[形]을 이루어주고 나를 삶으로써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써 편안하게 하며 죽음으로써 쉬게 한다.

을: 사람들은 스스로 지은 업(業)으로 인해 태어나고 죽는다.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하므로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러므로 번뇌(煩惱)의 화살을 뽑아 집착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한다.

— < 보 기 > —

ㄱ. 갑: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필연적인 변화 과정이다.

ㄴ. 을: 인간은 삶과 죽음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ㄷ. 을: 인간의 삶과 죽음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ㄹ. 갑, 을: 인간은 죽은 뒤에야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정초된 보편적인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을: 형벌의 정도는 위법 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형벌과 위법 행위 간의 비례의 규칙은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

병: 종신 노역형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처벌이 지속적 효과를 가질 때 범죄를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 ① 갑은 형벌의 정도가 범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야 한다고 본다.
 ③ 병은 사형이 범죄 억제를 위한 최선의 형벌은 아니라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살인자라도 사형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⑤ 갑은 을, 병과 달리 사형은 동해 보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옷을 만드는 이유는 바람과 추위를 막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다. 몸을 가린다는 것은 꾸미기보다는 문채(文彩)를 만들어 귀천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모두 유익함이 없다.

을: 옷을 만드는 이유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여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여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화려하기만 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옷은 없어야 한다.

- ① 갑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의복을 입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의복을 고를 때 유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③ 을은 의복을 선택할 때 장식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의복이 몸을 보호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의복을 신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본다.

9.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동물 실험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너의 주장을 삼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

대전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전제: ㉠

결론: 동물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없다.
 ② 동물 실험은 엄격하게 선발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③ 동물만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④ 이성적 능력이 결여된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⑤ 자의식을 지닌 삶의 주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된다.

10.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창조는 성스러운 것[聖]이 세계로 침투하는 신의 작업이다.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성이 속된 것[俗]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을: 설계된 듯한 모습을 한 생물들은 자연 선택을 통해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여 진화한 것일 뿐이다. 우주 만물의 설계자로서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유해한 망상이다.

- ① 갑: 성스러운 공간은 주위 공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다.
 ② 갑: 종교적 인간은 속의 시간과 성의 시간을 모두 체험한다.
 ③ 을: 생명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자연 선택을 통해 나타난다.
 ④ 을: 우주 만물의 시원으로서의 창조적 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갑, 을: 자연적인 존재와 초자연적인 존재는 양립할 수 없다.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3

11. (가) 사상의 입장에서 제시할 (나)의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사람이 어질지[仁] 않으면 예(禮)는 해서 무엇 하며, 악(樂)은 해서 무엇 하겠는가?
(나)	○ ㉠은/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부모를 섬기고, 후세를 잇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관계이다. ○ ㉡은/는 동기간(同氣間)으로 서로 화목함으로써 효(孝)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보 기 >	
ㄱ. ㉠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천륜(天倫)의 관계이다.	
ㄴ. ㉠은 상호 공경하면서도 분별[別]이 요구되는 관계이다.	
ㄷ. ㉡은 차이를 인정하고 위계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이다.	
ㄹ. ㉠, ㉡은 권면(勸勉)과 신의에 힘써야 하는 관계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강제력은 불의를 지속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강제력을 통해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정의 실현은 합리성을 계발하고 도덕적 선의지를 확충하는 방법들 통해서만 가능하다. 을: 도덕적 요인들은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강제력과 같이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이라도 사용해야 한다.
--

- ① 갑: 개인의 도덕적 양심은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없다.
② 갑: 합리적 이성인 강제력과 결합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③ 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비합리적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을: 정치적인 강제력을 통해서만 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⑤ 갑, 을: 개인과 집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녀가 상대의 성(性)을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향유로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자신의 성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이는 자신을 사물로 만드는 것으로 인간에게 고유한 인격체의 권리와 모순된다. 어느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 의해 사물처럼 사용될 수 있고, 다시 후자의 인격체가 전자의 인격체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결혼이다. 이것이 순수 이성의 법칙에 따른 필연이고 이럴 경우에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고 인격성을 회복할 수 있다.

- ① 남성과 여성이 사랑한다면 두 사람의 성적 관계는 정당화된다.
② 부부는 서로 성을 향유하면서도 인격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③ 자발적 동의는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④ 부부가 아니어도 상대방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⑤ 성적 욕구는 인격성을 저하시키므로 제거되어야 한다.

14.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천부적으로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 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켜 줄 때 타고난 자질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을: 차등의 원칙은 진행 중인 과정이 어떤 결과에 도달해야 할지를 규정한다. 분배의 결과를 규제하는 원칙은 취득·이전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 보 기 >	
ㄱ. A: 재화는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되어야 한다.	
ㄴ. B: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ㄷ. B: 정당한 소유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ㄹ. C: 재분배를 강요하는 차등의 원칙은 소유권을 침해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국가 성원들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을 맡아야 하며 수호자는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럴 때 국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된다. 을: 공산 사회가 되면 분업에 예측되는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 자체가 삶의 일차적인 욕구가 된다. 그럴 때 개인들의 전면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 학생 답안 갑은 ㉠ <u>사회적 역할 분담이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u>, ㉡ <u>공익 실현을 위해 통치자의 재산 공유가 요구된다고 본다</u>. 을은 ㉢ <u>사회적 분업이 인간의 자질을 다방면으로 발휘할 수 없게 한다고 보며</u>, ㉣ <u>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 노동의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u>. 한편 갑, 을은 ㉤ <u>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u>.
--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갑, 을, 병 중에서 두 명 이상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다양한 문화가 지니는 각기 다른 특성을 평등하게 인정함으로써 문화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을: 다양한 이민자는 출신국의 문화적 특성을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병: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회의 지배력을 가진 주류 문화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 < 보 기 > —

ㄱ.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ㄴ. 공존을 위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가?
 ㄷ. 사회 통합을 위해 주류 문화를 인정해야 하는가?
 ㄹ.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7. 갑은 긍정, 을과 병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차등의 원칙 실현이 아닌 정치 문화의 개선을 지향한다.
 을: 해외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강제하는 이론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병: 해외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악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의무에서 행해져야 한다.

- ① 해외 원조는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가?
 ② 해외 원조의 대상은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모든 사회인가?
 ③ 해외 원조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것인가?
 ④ 해외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와 평등의 확립에 있는가?
 ⑤ 해외 원조는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18.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을 행하려면 유덕한 성품을 길러야 한다. 유덕한 성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옳은 행위를 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의무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가 ㉠고 생각한다.

- ① 자연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도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② 구체적 상황보다 보편적인 원리를 고려하여 행위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선의지임을 간과한다
 ⑤ 맥락에 따라 도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19.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극히 비인도적인 일이 일어나고 해당 지역의 어떤 세력도 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무력 개입이 필요하다. 다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
 을: 전쟁은 폭력과 같이 우리의 상식과 도덕이 금지하는 거의 모든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병: 국가 간 투쟁이 불가피한 국제 사회에서는 군사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고, 어떤 전쟁도 도덕적 측면에서 판단할 수 없다.

①	갑이 을, 병에게	전쟁 개시의 명분이 정당하면 정의로운 전쟁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②	을이 갑, 병에게	폭력을 막기 위한 군사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③	병이 갑, 을에게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④	갑, 을이 병에게	모든 전쟁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무시하고 있다.
⑤	을, 병이 갑에게	모든 전쟁은 본질적으로 폭력을 수반함을 모르고 있다.

20. 다음 칼럼의 입장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어떤 사람들은 정보가 창작자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정보를 창작자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차단되고 질 높은 정보의 창작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이 아닌 공유 자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 ① 지식재산권 보장은 정보화의 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② 정보를 사유재로 인정할 경우 정보의 흐름이 활성화된다.
 ③ 지식재산권이 강화될수록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
 ④ 지식재산권 보장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
 ⑤ 정보에 대한 사적 권리의 보장으로 공익을 증진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